

12 칼빈의 하나님, 교회,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대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관심에 주는 교훈¹⁾

손병덕 교수 / 종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교회의 선교초기로부터 복음의 전래와 함께 시작된 교회사회복지는 한일합방 이전까지 최대 발전의 모습을 보이다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위축되는 듯하였으나, 의료 및 사회계몽 활동의 선봉에는 여전히 기독교사회복지가 있었다.²⁾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혼란에 있다

1. 본 글의 영문제목은 "God, Church, and World : Calvin's Understanding and Lessons of God, Church, and World on Church Social Work Practice"이다.
2. 「기독교사회복지총람」(서울 : 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07), pp. 233-235.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전개되기 전 1906년 개성에서 선교사 Cram이 부흥사건의 목격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성령의 주재하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은 순수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도 말하여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돈을 훔친 자는 돌려주고, 형제를 미워한 자는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며, 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양반이라고 하여 천민을 멸시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을 종으로 알지 않고 친구요 형제로 대하겠다는 것이었다(김영재, 1994, p. 117에서 재인용). 김영재, 「한국교회사」(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가 전쟁 직후 기독교세계봉사회 한국위원회, 홀트아동복지회, 기독교 아동복지회 등 기독교사회복지기관들의 역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시금 성장의 발판을 삼아 1980년대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주체의 약 60%를 점유할 정도로 매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³⁾ 그러나 성장 중심의 교회추구경향과 함께 기독교사회복지계는 전체 사회복지계가 성장할 때 동반성장을 이룩하지 못하여 2005년 초반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30% 정도에 불과하기에 이른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Expo)가 개최되는⁵⁾ 등 전례 없는 교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어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

최근 교회의 사회복지관련 조사⁶⁾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회봉사를 기독교의 본질로 이해하며, 사회봉사를 위한 특별헌금을 한 경험이라는 교회는 61.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교회의 이와 같이 근자에 다시 불기 시작하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대하여 성경적, 개혁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방향 제시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성도들의 사회봉사 참여에 즈음하여 그들의 봉사가 영적 성장을 결과하도록 돕는 성경적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의문⁷⁾이 존재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고,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신적인 신령한 양식을 주시며, 복음을 선포하는⁸⁾ 신적 제도로써 교회를 세우셨다.

3. 손병덕, 「기독교사회복지」(서울: 예장출판사, 2005), pp. 103-141.

4. 손병덕,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흥릉교회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 2006, p. 16.

5.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개막……, '1200만' 사랑의 힘 한국을 바꿨다,」 「국민일보」, 2005. 8. 24.

6. 「기독교사회복지총람」(서울: 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07).

7. 사회복지시설 관련 비리 보도에 기독교계가 관련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왔다. p. 20 참조.

8. 칼빈, 「기독교 강요」 하: 제1장, p. 15.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⁹⁾

성도는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¹⁰⁾ 교회의 방향제시가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따라서 교회는 작금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대하여 적절한 하나님의 뜻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를 요청 받는다.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칼빈의 하나님, 교회, 세상에 대한 이해를 탐구는 교회의 사회복지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대한 성경적 성찰과 대안적 제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칼빈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그의 기독교 강요 서언을 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삶의 전방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을 명석하게 돌아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향하게 되어 있다.¹¹⁾

9. 칼빈, 「기독교 강요」 하: 제1장, p. 110.

10. 칼빈, 「기독교 강요」 하: 제1장, p. 15.

11. 칼빈, 「기독교 강요」 상: 제1장, p. 41. 칼빈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상하는 대로 옮겨 갈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같이 칼빈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기초는 하나님의 존재인식이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하였다.

칼빈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지식이 무소부재하심의 본질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인지할 수 있는 동인은 역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의 어려움을 깊이 진작할 때라고 제시하였다.

우리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곧 첫 사람의 반역이 우리에게 드리워 놓은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거기서 찾으려 하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비참의 세계가 존재하며, 또한 신적인 의복이 벗겨진 이후로 우리의 부끄러운 별거벗은 상태로 인하여 온갖 수치스러운 것들이 때를 지어 드러나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고 찔림을 받아 결국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되고,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덕,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다.¹²⁾

이때 참된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를 깨닫고, 그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존재의 나약함과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을 살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고 한다. 즉, 진선미의 본체이시며 거룩 위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자신의 현존재를 점검할 때 “우리

12.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1장, pp. 41-42.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¹³⁾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현존재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깨달을 때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불의한 것 이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유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선과 참된 양육의 근원이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상태가 하나님의 존재와 얼굴을 구하는 경건¹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그 지식은 “두려움과 경외”¹⁵⁾ 그리고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우고 실제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¹⁶⁾을 살게 된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베푸심과 같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똑같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두려움이 합일되어 가슴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공경심의 발현이 가슴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막을 헤매는 자들을 맹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시 107 :

13.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1장, p. 42.

14. Plantinga(1982)는 칼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을 요청한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창조, 전지전능, 무소부재, 지혜, 의, 심판, 자비, 권능, 성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체의 본질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추구할 아무것도 없다. Cornelius Plantinga(1982). The concern of the church in the socio-political world : A Calvinist and Reformed perspective, The North American and Caribbean Area Council of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Nov. 18, 1982, p. 193.

15.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1장, p. 47.

16. Ibid. 칼빈은 “하나님의 덕분으로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칼빈은 계속해서 경건의 삶이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진력하고 그의 명령들에 복종하는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다(Ibid., p. 48).

4-7)…… 꺾어져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며(9절),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처참한 감옥과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며(10-16절), 바다에서 파선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포구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시며(23-30절), 거의 죽은 자들을 질병에서 고쳐 주시는(17-20절)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난한 자들이 먼지더미에서 일어나며, 궁핍한 자들이 거름더미에서 일어서며(시 113 : 7), 놀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그 극한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선한 소망을 회복하는”¹⁷⁾ 결과가 나타나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 이러한 삶의 형태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겨서 행하게 하셨다.¹⁸⁾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자신에게 맡기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매순간 성령의 조명과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가능하게 하실 때 온전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적 특징을 인간의 경건한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¹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2. 칼빈의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적 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보내심으로 구속 역사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현

17.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1장, p. 69.

18.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2장, p. 261.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대속의 은총을 힘입으며 거듭나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19.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2장, pp. 344-345. 칼빈은 성령의 조명과 관련하여 성령의 조명과 역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전면적 회심이 선행된 이후 가능하고, 전면적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오직 은혜의 역사라고 깨닫고 그런 삶을 지속하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하였다(pp. 360-362).

된 거듭남을 실제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라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도 존재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완전한 구현체로 존재하게 되었다.²⁰⁾ 따라서 교회는 언약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에 동참하였으나 여전히 언약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²¹⁾을 한다.

……어머니라는 간단한 호칭에서도, 교회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또한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를 배워야……. 이 어머니가 우리를 그 뱃속에서 잉태하고, 낳고, 가슴의 젖으로 우리를 양육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마 22 : 30), 그 보살핌과 인도 아래 우리를 지키지 않는 한 우리가 생명 속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들로 있어야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²²⁾ …… 교회의 손을 통하여 신적으로 베풀어지는 신령한 양식을 물리치는 자들은 기갈과 굶주림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복음을 도구로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신다…….²³⁾

칼빈이 제시하는 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가시적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제정하신 영구적인 직분에는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사와 책별과 권징의 시행을 맡은 장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집사²⁴⁾가 있다. 이때 집사는 구제물을 나누어 주는 자들²⁵⁾과 가난한 자,

20. Blaser, K. (1993). *Ecumenical Review*, Vol. 45 No. 3 : p. 317.

21. 칼빈, 「기독교 강요」 하 : 제1장, pp. 9, 15.

22. Ibid., p. 14.

23. Ibid., p. 15.

병든 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역할을 한다²⁴⁾고 하였다. 칼빈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책벌·권징을 담당하는 장로 외에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집사들에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요, 신자의 완전한 규범적 삶인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림”(롬 12:1), “심령을 새롭게 하여 섬김”(엡 4:23), “자기 부인”(마 16:24)이 세상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살전 3:5)²⁷⁾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자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를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그 삶을 닮아 가고,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교회구성원들의 삶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요구된다. 칼빈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가 이웃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원리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임²⁵⁾

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외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굴복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에게 굴복하는 우월주의적 상황이 개선되어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굴욕적 삶에서 적극적인 형태의 삶의 회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칼빈이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한 이면에는 스스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데서 나를 낮추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방식이 실천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24. Ibid., pp. 64-70.

25. 현금과 기부금을 관리하는 행정적 측면의 실행을 의미.

26. Ibid., pp. 69-70.

27. 칼빈, 「기독교 강요」 중: 제7장, pp. 203-207.

28. Ibid., pp. 207-209.

2) 이웃의 유익을 구함²⁶⁾

칼빈이 ‘의무’라고까지 말하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제로 매우 어려운 삶의 방식이 틀림없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물”(벧전 4:10)이라고 느끼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눔을 통해 내 자신에 대한 열심이 굴복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3) 이웃을 향한 사랑²⁷⁾

하나님은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당사자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서 모든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의무가 있다. 가난하고 비천하면서도 미워하는 자, 악을 선으로 갚아 주는 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랑에까지 이른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웃에게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4) 이웃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함²⁸⁾

사랑의 실천은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가장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형태도 가능하나, 그 실천자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랑의 행위자를 죽이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성도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전적으로 요구된다.

29. Ibid., pp. 209-211.

30. Ibid., pp. 211-212.

31. Ibid., pp. 212-213.

5)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김³²⁾

주님이 신자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관없는 물질적 부귀, 명예, 권력, 사치와 영화, 욕심과 소망을' 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교회에 속한 신자 개인적 삶의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인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교회의 실재 수입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마음과 행위, 물질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하였다. 즉, ① 성직자 ② 가난한 자 ③ 교회의 유지보수 ④ 교회 밖 국내외 가난한 자들³³⁾이 교회 현금의 사용처가 된다. 특별히 성직자를 위한 부분에서 '검소하고 절제 있는 음식과 의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 외에 자신을 위하여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³⁴⁾는 점은 교회현금의 용도가 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이도록 매우 엄격한 집행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당시 교회 수입 운용의 부패함을 비난하면서 적어도 교회 수입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³⁵⁾고 하여 개인적인 삶의 모습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삶의 방향도 이웃을 돌보는 데서 실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32. Ibid., pp. 203-215.

33. Ibid., p. 84.

34. Ibid. 칼빈은 심지어 "교회에 현금된 돈은 아무리 필요한 데가 있어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고(p. 85), 실제로 예루살렘 지방과 페르시아 지방에 기근이 들자 교회의 그릇, 예복들을 팔아 음식을 공급하고 물질적 어려움을 덜어 주었다는 점을 예로 지적하면서(p. 85),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다 불쌍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감독이 가진 것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없다."(p. 86)라고 강조한 바 있다.

35.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1장, p. 113.

3. 칼빈의 세상에 대한 이해

세상이 교회에게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고는 교회의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칼빈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말소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과 실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규정하였다.³⁶⁾

.....아담에게서 하늘의 형상이 말소된 후에, 아담 혼자만 이 형벌 — 처음 그에게 주어졌던 지혜와 덕과 거룩함과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고, 그 대신 지극히 추한 더러움과 몽매함과 무능력과 불결함과 허망함과 불의가 생겨나게 된 사실 — 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후손들 역시 동일한 비참 속에 얽혀 들어가 거기에 잠기게 된 것이다.³⁷⁾

따라서 세상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잉태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부패한 상태에 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본성과 각 부분이 모두 지성에서 의지에 이르기까지, 영혼에서 육체에 이르기까지"³⁸⁾에 해당되며, 그 부패성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 사라지지 않고, "불타는 용광로에서 불꽃과 화염이 계속 튀어나오며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듯이 계속 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다."³⁹⁾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36.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2장, pp. 299-301.

37. Ibid., p. 301.

38. Ibid., pp. 306-307.

39. Ibid., p. 307. 칼빈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덕성의 모습들에 대하여도 만약 그런 덕성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산물이지만

있는 영적인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⁴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무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전적 부패한 상태에서부터 손상된 본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를 통하여 의와 생명을 회복하여야 한다(롬 5:17). 그러므로 교회는(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경험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적 구현체로서 죄의 본성 아래 놓여진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할 끝없는 사명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를 이 땅 위에서 실천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 실체를 구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그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넘쳐나기 시작⁴¹⁾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조명으로 구체적으로 체험되며, 성령의 조명으로 감화된 모든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목적, 즉 소명⁴²⁾을 향한다. 소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깊이 깨달

간 자체의 품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Ibid., p. 357).

40. Ibid., p. 335.

41. Plantinga, Cornelius, Jr. (1983). The concern of the church in the socio-political world: a Calvinist and Reformed perspectiv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8, No. 2: p. 195. Plantinga는 교회를 통한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한 이해를 지속하게 하고, 그 이해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 자신의 소명을 추구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42. 칼빈, 「기독교 강요」 중 제3권 10장: p. 248. 칼빈은 소명이 다스리는 직분, 가장의 직분 등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의욕적으로 불평 없이 수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인지하는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형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영적 산 예배로 드리는 섬김과 자기부인의 삶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의무들과 하나님의 사명들을 준행⁴³⁾하는 그 자체가 된다. 그런 소명에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은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롬 13:14), 검소한 생활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살지게 하는 열망과 애착을 가지며,⁴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물질을 운용⁴⁵⁾하려 한다. 이와 같은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였던 자기부인,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이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⁴⁶⁾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생활에서 자기 유익을 구할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심을 열정적으로 행하여 자신의 이기적 성향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⁴⁷⁾ 해야 한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낙담케 하는 원인들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으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사랑을 실천할 힘을 회복하여야⁴⁸⁾ 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 주며,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은(마 5:44) 정말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인간

43. Ibid., p. 245.

44. Ibid., p. 246.

45. Ibid., p. 247.

46. Ibid., 제3권 제7장: pp. 207-298. 칼빈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은 인간 본성 자체로는 행할 능력조차 없다고 하였다.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실제로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47. Ibid., p. 210.

48. Ibid., p. 211.

의 본성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곧 사람의 악한 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덮어 주고 제거시켜 주는 동시에, 그 형상의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⁴⁹⁾

이와 같은 일련의 실천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인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mortification)”⁵⁰⁾이 점점 더 실현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리스도인이 외형적인 사랑의 실천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를 닮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향하여 방향 지워져 마음으로부터 그런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갈 수 있는 것이다.

4. 현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에 주는 교훈

교회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교회가 주도하여 지역사회 혹은 국가의 제반 사회복지적 문제들⁵¹⁾을 해결, 혹은 해소하는 데 주체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형태를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 방법은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의 형편에 맞는 사회복지

49. Ibid., p. 212.

50. Ibid.

51. 사회복지적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복지 실천 대상별로 분류하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노숙자/국제결혼가정 등으로 크게 분류가 가능하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안고 있는 가난, 신체/심리/정서/인지적 고통, 알코올/담배/마약 등으로 인한 심리적·행동적 교정, 사회일탈행동, 비행행동, 범죄행동, 인권, 가정폭력, 학대, 방임, 유기, 입양, 각종 사회부적응 행동 등이 직접 실천의 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발생원인, 경향, 예방, 보호, 치료를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개발·법의 제정 등이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들이 된다.

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적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이와 함께 지역복지관이나 시설을 민간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 위탁케 하는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법안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의원이고, 정책을 연구·기획하는 인력은 주로 정부산하단체와 연구용역 수입 교수들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복지정책의 연구, 기획, 법안창출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교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고, 위탁주체인 민간사회복지법인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회도 기독교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첫 번째 범주의 교회 사회복지 실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약 30% 정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천주교와 불교가 비슷한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비록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지 않으나 교회 안에 지역의 사회복지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 사회복지에 식견 있는 전문가들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범주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교회 내에 사회복지위원회와 같은 전문적 대처 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았으나, 지역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물질과 인력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나 단체가 일정 수익을 창출했을 때 적어도 그 수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어느 정도의 동의를 형성⁵²⁾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익성 회사들

52.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하

이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전문적 사회복지 활동과 사회복지기관·시설 운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교회도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원래 기독교의 신앙의 모토가 추구하는 바를 따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고 지역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많은 것⁵³⁾이 사실이다. 실제로 교회는 19세기 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때부터 맹아원, 고아원, 병원, 학교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다각도로 시도하여 개화와 문명의 전달,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전문실천의 영역을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일반의 공공의식 성숙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욕구와 실천이 가속화될 때 지난 20년 동안 교회는 점점 그 중심에서 소외⁵⁴⁾되어 가고 있는 형편에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최근 기독교 일각에서 나타나는 반성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교회의 사회복지적 활동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식 속에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사실이다.

나르써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은 단순한 이익의 사회 환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업들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 깨닫기에 이른다. 즉, 이익의 사회 환원과 적극적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근본적으로 기업 구성원들의 체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보다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인지한다(“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자선 아닌 투자,” 『동아일보』, 2006. 6. 12.).

53. 최근 발표된 200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개신교 숫자는 줄어든 반면에, 천주교는 74%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천주교의 성장에 대하여 천주교 자체의 평가는 사회봉사를 통하여 천주교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인상을 심어 준 것이 주효하였다고 한다(“2006년 인구주택총조사 그 이후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톨릭 성장,” 목회사회연구소 포럼, 2006. 11. 30, 기독교백주년기념관).
54. 손병덕(『기독교사회복지』 <서울: 예장출판사, 2005>)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사회복지 민간시설 위탁운영 주체가 1980년대에는 전체 시설의 90%를 상회하였으나, 2004년에는 종교기관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기관만 두고 분류하여도 기독교가 약 30% 정도만 차지하고, 천주교 30%, 시설운영 역사가 불과 10여 년에 불과한 불교가 기독교와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전문사회복지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때에 위에서 살펴본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칼빈의 하나님, 교회, 세상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사회를 향한 사회복지 실천의 의지와 실제적 생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1)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 실천

현대 사회복지의 기본적 직접사회복지⁵⁵⁾ 실천 대상은 가난 등 다양한 환경적 영향, 그리고 인간의 내외적 결핍의 문제로 말미암은 인간내면과 외면적 행동, 그 부정적 결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보호·예방(가해자들의 치유·재활), 그리고 인간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과제 등 각종 복지적 문제들이 된다. 칼빈의 개혁주의적 이해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전적타락으로 말미암은 것⁵⁶⁾으로 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반궁한 처지와 인간 일반에게 드리워진 처참한 황폐의 상태들, 비참한 인간세계의 무지·공허·빈곤·연약함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깊이 진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자신과 인간일반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다는 실존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⁵⁷⁾ 그 깨달음은 인간 부패의 결과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하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모든 선과 양육케 하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지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얼굴을 구하는 참된 경건의 삶의 추구⁵⁸⁾로 나타난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55. 본 연구가 교회가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복지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정책적 실천보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직접사회복지 실천을 말한다.

56. 칼빈, 『기독교 강요』 상: 제1장: p. 42.

57. Ibid., p. 42.

58. Ibid., p. 47.

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똑같이 공홀과 자비를 실행하는 구체적 실천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과 함께 이웃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는 내면의 사랑과 공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조명⁵⁹⁾을 의지하고 추구한다.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회복지적 실천은 복음전파와 함께 자신의 중요한 삶의 영역이 된다. 그런데 경제적 지원·목욕/이·미용서비스·심리적 재활서비스·교육/기술훈련/인지개선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적 직접실천, 혹은 봉사는 단순한 봉사행위의 반복,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 쉽지 않는 변화과정, 자신의 물질과 노력의 지속적 소비 등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활동이다. 실제로 자원봉사적 활동은 일반인의 평균 24% 정도가 경험하였다고 했으나 연간 봉사 시간은 10시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⁶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직률이 높아 평균 이직 기간이 13개월⁶¹⁾에 육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독교 봉사자 혹은 기독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한 영적 자양분의 공급은 칼빈의 하나님 이해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자기추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영적 능력의 축적 없이 이웃을 위한 봉사

59.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2장, pp. 344-345.

60. 유한김벌리 기빙인덱스조사, “국제심포지엄 Giving Korea 2006,” 아름다운재단 2006. 11. 08. 한양대학교.

61. Withnews(인터넷 장애인 신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열악한 임금수준 및 임금의 지역격차 등 집중 논의, 2006. 05. 09.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처우가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여전히 단순·반복적 업무는 업무와 봉사적 활동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충청남도 참여마당, “충청남도예 바란다,” 2006. 3. 7. (http://www.chungnam.net/content/cnnet/part/01/part_01_01_eboard_read.jsp?code=V01&EBOARD_SEQ=9208).

는 하나님의 경험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아닌 교회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사회복지분야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주를 이룬다. 교회가 직접 혹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그 법인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단순 부조나 개별적 봉사차원을 넘어선 전문 사회봉사의 영역이 마련된 셈이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칼빈은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에 피난 온 기독교인들을 위한 초기 사회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브루스 프랑세즈 앵 주네바’(Bourse Francaise in Geneva)⁶²⁾를 설립하

62. Jeannine E. Olson, (1989), Calvin and Social Welfare : Deacons and the Bourse francaise, Cranbury, NJ :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Olson은 Bourse francaise가 근대 사회복지시설의 한 형태로서 존재하였으며 특별히 집사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현대사회복지실천의 특성과 직접 연결하여 비교하지는 않았다. 칼빈이 세운 Bourse francaise가 아주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칼빈 이전에 이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지역 사회복지부조기관 ‘병원(Hospital)’이 유럽 전역에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제네바에도 13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중반에 7개의 병원이 존재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바람을 타고 이 병원들이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1년 전인 1535년에 하나의 병원(The General Hospital)으로 통합되었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상인들이 주로 행정을 맡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 행정과 봉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칼빈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의 새로운 직제, 즉 집사들이었다(Robert M. Kingdon, (1971),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6, No. 1 : pp. 50-69). 그러나 이 병원은 스위스 사람들을 위한 기관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을 위해 칼빈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적 실천이 필요했기 때문에 Bourse francaise를 설립하고 전문적 실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기존의 병원들과 탁월한 차이

여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 실천의 장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원칙으로 대두되는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의 원칙⁶³⁾이 상당 부분 실현시켰던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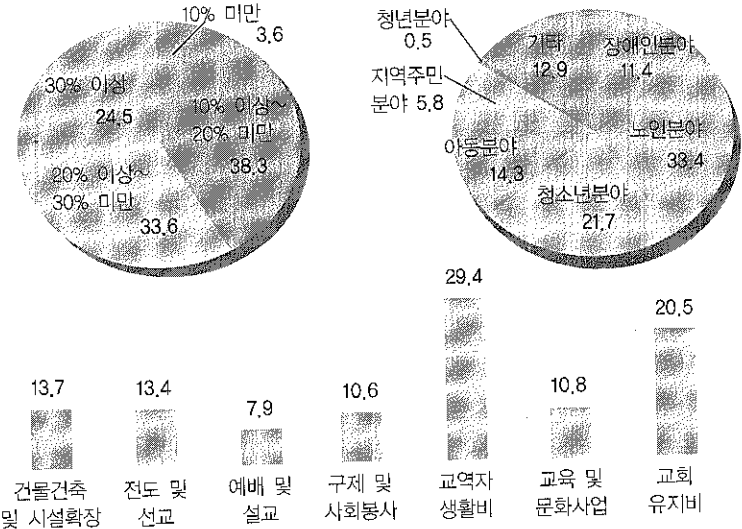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의 교회에 대한 이해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사들로 하여금 브루스 프랑세즈에서 일할 때 당시 지역적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은사(전문성)에 부합하는 봉사를 하되, 거듭난 성도로서 책임 있는 마음의 봉사를 실현하도록 독려했다고 이해된다. 주로 집사들로 구성되는 봉사자들이 검소한 생활을 하고, 기부된 현금의 대부분⁶⁴⁾을 가난하고 병들며, 고아와 과부, 직업훈련이 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교회 사회봉사 관련 조사연구에 따르면, 교회 예산 중 이상적인 사회봉사비 비율이 2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 결산액의 항목별 비중에서 구제 및 사회봉사 영역의 비중은 10% 정도에 그치는 것(그림 1 참조)⁶⁵⁾으로 나타나는 바는 여전히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 수준이 저조하고, 실제 비용투여도 낮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탁월한 실천의지와 열정, 보다 전문화된 운영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63.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서울: 학지사, 2006), pp. 186-188. '지역성'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함을 의미하고, '책임성'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의 현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의 투입과 프로그램의 운용을 말하며, '책임성'은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책임과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64. 칼빈, 「기독교 강요」상: 제1장, p. 113. 칼빈은 교회 수입 운용의 절반은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Bourse francaise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기부된 돈의 대부분을 구제관련 운용에 쓴 것으로 나타난다.
 65. 홍영기·손병덕 외, 「불신자들을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연구」(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5);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편람」(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007).

교회 예산 중 이상적인 사회봉사비 비율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회봉사



〈그림 1〉 교회예산의 이상적 사회봉사비 비율 인식과 교회 결산액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계 지원금이 기독교는 시설 1개소 당 5천 3백만 원에 불과한 데 비하여, 천주교는 1억 1천 3백만 원에 달하여 기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천주교와 비교할 때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칼빈이 언급한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교육과 실천 및 양육 주체로서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자기부인과 이웃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제도이다. 그러나 교회가 지역의 문제를 사랑으로 보듬고,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는 실천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적정 수준의 재정적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를 추구하는 데 있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 백만 원)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계	505,085	157,512	218,505	129,068
(n)	(779) ⁵	318	247	214
정부지원금 ¹	288,551	80,230	133,234	75,087
종교계지원금 ²	54,570	16,955	27,908	9,707
시설 1개소 당 ³ 종교계지원금	79,407	53,3	112,9	45,3
이용자부담금 ⁴	82,555	27,865	20,160	31,382
기타		32,461	37,202	12,892

- 주 1.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금 포함
 2. 종단본부, 교구, 예당, 종교계 법인 등의 지원금 포함
 3. 종교계 지원금을 시설 전체수로 나눈 금액
 4. 기업, 민간모금단체 등의 후원금, 접수익, 전년도 이월금 등 포함
 5. 조사에 응답한 시설 수

<표 1>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 규모 및 구성(2003)⁶⁶⁾

3)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 실천

기독교의 사회봉사에서 비롯된 사회복지실행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 행정, 연구, 교육, 윤리에 있어 최상의 실행'⁶⁷⁾을 추구하도록 요청 받는다. 즉, 사회복지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의 문제 해결과 해소, 보호의 증진, 관계의 회복, 장기간 치료 등 서비스의 실행과 행정체계, 전문가적 실천의 유지·증진을 위한 교육, 이용자와 전문

66. 정책보고서 2005-2007,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2001-200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 143.

67. Harry Ferguson(2003), Outline of a Critical Best Practice Perspective on Social Work and Social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 33 : pp. 1005-1024.

• U. S. Department of Labor :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Social Worker'(http : //www.bls.gov/oco/ocos060.htm).

• Code of Ethic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사회복지실천의 윤리는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서비스의 질, 사회정의 실현, 이용자의 존엄과 가치, 인간관계, 실천의 일관성, 경쟁력에서 최상의 수준을 견지해야 할 것을 말한다(http : //www.nasw-wa.org/home/index.cfm).

가/시설/기관 윤리적 가치가 최상의 형태가 유지되고 더 나은 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반 사회복지실천의 원칙과 윤리가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사회복지적 실천의 주체가 되어 이웃의 문제를 직접 대응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전문가적 실행을 단행하며, 다른 사회복지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할 때, 사회복지의 실천원리와 윤리적 적용을 뛰어넘어 '세상 가치체계의 일반적 추구'⁶⁸⁾를 계도하는 모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회는 전적 부패한 상태로부터 손상된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을 체험한 주체⁶⁹⁾가 된다.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적 구현체로서 죄성 아래 놓여진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짐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삶을 실천'(벧전 4 : 11)하여 세상이 빛의 자취를 좇아오도록 혹은 그 아름다운 실천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민간 사회복지실천의 주체로 기관운영과 전문가적 실천에 참여할 때 가장 우수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치와 존엄을 회복하게 하며,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윤리적인 기관운영을 실시하는 기본적 책임을 요청 받는다.

나아가 사회·복지적 직접실천 대상인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는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 보다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손병덕(2006) 조사에 의하면 1995~2005년 사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65% 이상 자연증가,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그리고 교회 인구의 비슷한 증가에 따라 교회의 사회·복지적 관심도 노령인구를 위

68. 사회복지기관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비영리적이어야 하고, 사회적 소외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실천하여야 하나, 최근의 사회복지계의 상업화 경향은 사회복지의 실천원리와 윤리적 가치가 폄하되고 있음을 우려케 한다.

69. 칼빈, 「기독교 강요」 상 : 제2장, p. 335 ; 중 제3권 10장 : p. 245.

한 복지참여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실제로 2004~2006년 사이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운영 노인복지기관·시설은 약 55% 증가한 데 비하여 장애인시설은 11% 증가한 데 그치고 있다.⁷⁰⁾ 반면에 천주교계가 각각 200%, 50% 증가폭이 있었고, 불교계는 200%, 100% 증가가 조사되어 타 종단에 비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적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⁷¹⁾ 또한 전국 노숙자 시설에 대한 조사도 2006년 현재 기독교 운영시설이 3개소에 불과한 데 비하여 천주교는 10개소⁷²⁾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⁷³⁾이 5%를 넘지 않는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주된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향한 교회의 관심이 결여될 때 장애인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적절한 열매를 맺기 어렵다. 칼빈은 세상의 약한 것, 약한 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를 실현하는 방법인 것을 말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참된 가치와 참된 실천의 원형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시한 세상의 소외그룹을 위한 교회의 섬김과 사랑은 멈추어질 수 없는 부분이나 교회의 현재 실천 모습은 칼빈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 의한 사회봉사와 실천은 세상의 가치와 능력에 철저하게 비교되는 탁월함이 드러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 구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까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70. 손병덕,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흥릉교회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 2007, p. 16.

71. Ibid.

72. Ibid.

73. 2005년 통계청 조사 전체 인구 중 기독교 인구가 18.3%인 것을 감안할 때 최대 5%에 불과한 장애인의 기독교 복음화 비율은 장애인을 향한 교회의 노력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7-11).